

제35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

호남우도농악 도둑잡이굿

- 일 시/ 1994년 10월 20일 (목)
- 장 소/ 춘천실내체육관(무대종목)
- 주 최/ 문화체육부. 한국문예진흥원
MBC 문화방송
- 주 관/ 강원도. 춘천시



광 주 직 할 시

農者天下之大本

湖南右道農樂도독잡이굿

광주직할시



도둑잡이굿에 대하여

池春相(全南大教授)

오늘날까지 傳承되고있는 수 많은 民俗藝術 가운데 農樂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. 특히 湖南地方의 農樂은 湖南右道農樂과 湖南左道農樂이 독특한 가락과 진법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지방의 農樂보다도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있다.

湖南右道農樂의 「마당밧이」에서는 각 과정마다 告祀를 지내 家神을 달래기도하고, 상쇠의 德談으로 액을 몰아내기도하며, 성주풀이를 비롯한 액막이, 중천맥이등의 노래로 액을 막아내기도 한다. 또 「판굿」에서는 각 잭이들이 소고춤, 장고춤, 잡색춤등을 演舞하여 구경꾼들의 예술적 감각을 일깨워 주기도하고, 잡색놀이나 도둑잡이굿과 같은 民俗(喜)劇을 演戲하여 그날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기도 한다.

이와같이 農樂은 가락과 陣法 뿐 만 아니라 聲樂(唱), 舞踊, 演劇, 告祀, 德談등 다양한 民俗藝術이 총 망라된 綜合藝術이다.

「도둑잡이굿」은 상쇠를 우두머리로 하여 징 장고 소고등을 치는 잭이들을 我軍이라 하고, 대포수를 우두머리로 하여 할미 양반 참봉 각시와 같은 잡색들을 敵軍이라 하여 이들이 서로 꾸미는 군사(軍士=戰爭)놀이적 성격을 갖는다.

我軍은 規律이 엄하고 組織的이어서 軍隊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, 敵軍은 매우 해학적이고 喜劇的이며 기강 또한 해이된 상태여서 서로가 相反된 모습으로 비춰진다.

이 굿은 我軍이 敵軍의 조리중에 의해 나발을 도둑맞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는데 그 과정이 28수(宿)라는 「28가지의 진법(=戰術)」으로 표현된다. 28수의 진법이 끝난 뒤 대포수는 상쇠의 삼지창에 의해 죽게 되지만 占을 통해 다시 살아남으로써 서로가 화합한다는 줄거리를 갖는 이 굿은 「공동체의 隣保精神」을 강조하고 있다.

湖南右道農樂의 專門 藝人들은 “**낮에는 33체요, 밤에는 28수(宿)라**”하여, 「문굿」에서 연주되는 「33체의 가락」과 함께 「도둑잡이굿」에 나타나는 「28수의 진법」을 매우 중요시 했다. 그러나 오늘날 演戲되는 대다수의 農樂들은 가락 중심의 연기에 치중하고 있어 농악 본래의 綜合藝術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. 따라서 이 굿은 농악을 綜合藝術로 승화시키는데 그 意義가 있다 하겠다.

도둑잡이굿의 내용

- 池春相 / 고증 및 각색
- 朴鏞載 / 지 도

1. 판굿
2. 나발의 분실
3. 28수(宿)
4. 대포수의 죽음
5. 조리중의 점(占)과 잡색놀이
6. 대포수의 회생
7. 허허굿



- 상쇠는 질긱가락으로 입장하여 아군과 적군을 두패로 가르는 「아군잡이」를 한다.
- 아군은 중앙에서 큰 진을 치고, 적군은 밖에서 보다 작은 진을 친다.
- 아군이 휴식을 취하고 나발수의 나발소리에 적군들은 고개를 디밀고 들여다본다.

상 쇠 : 술렁수-

대원들 : 예- 이-

상 쇠 : 성안에 도둑이 들었으니 악기 기거 중창 하라.

대원들 : 예- 이-

-이때 나발수가 나발을 바닥에 놓아두고 자리를 옮긴다.

-조리중이 나발을 훔쳐간다.

대 원 : 나발이 없어졌다

대원들 : 나발이!

큰일났네!

상 쇠 : 술렁수-

대원들 : 예- 이-

상 쇠 : 모든 군사들은 출전 준비를 하라!

대원들 : 예- 이-

-이때 잡색들은 서로 나발을 붙어보려하고, 소리가 나지않자 조리중에게 도로 쥐버린다.

-상쇠는 구정놀이가락을 내어주고 중앙에서 S자진법, Z자진법, 태극진법 등 28수를 행한다.

-28수의 진법을 모두 행한 후 상쇠는 삼지창으로 대포수의 투구를 벗겨 버린다.

(대포수의 투구가 벗겨진 것은 대포수의 죽음을 의미한다.)

잡색들 : (모두 비통해하며)

오메! 우리장수가 죽어브렀네

오메! 이일을 어쩐다냐?

-이때 나발을 찾은 아군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흥겨우게 농악을 친다.

잡색들 : 어이마시! 여보게들, 어떡코롬해야 우리장수를 살려 낼 수 있단가?

글씨말이시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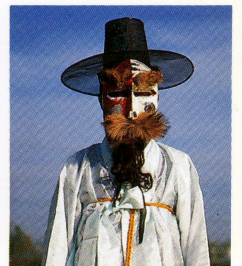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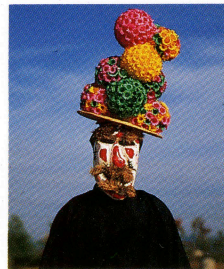
정말 큰일이시?

뭘 좋은 수가 없을께?(잡색들이 수근거린다)

비리쇠 : 나한테 좋은 수가 오-흥 있기는 현디! 오-흥
 잡색들 : (비리쇠을 빙-둘러싸며)
 그것이 뭇이나?
 그래! 어디 그 수가 뭐가?
 비리쇠 : 궁계 오-흥 그것이 오-흥
 잡색들 : 아 이놈아! 빨리 말좀 해라.
 말해봐라, 말해봐!
 비리쇠 : 궁계 오-흥 어떠ㅎ허든지 오-흥 우리장수를 살릴 방
 도를 찾아야허지 않겠소?
 잡색들 : 큼매마시
 그렇게! 그 수가 뭐냐?
 비리쇠 : 저번참에 오-흥 내가 누구한테 오-흥 들은소린디라
 우, 오-흥 궁계 오-흥 장성 백양사에 오-흥 도승이
 하나가 내려왔다는디 오-흥 그 중이 글씨 오-흥 점을
 잘 친다고 허드랑 께라우. 오-흥
 잡색들 : (고개를 끄덕이며)
 응- 그래갔꼬?
 비리쇠 : 허다못해 오-흥 그 중한테 점이라도 한번 오-흥 쳐
 보든 어저졌나? 오-흥
 이말이지라 우! 오-흥
 잡색들 : (고개를 끄덕이며)
 그래! 그것이 좋겠다.
 그래! 그래보자

-양반과 잡색들이 각시와 노닥거리고 있는 소리중에게로 간다.

양 반 : 스님-!
 잡색들 : (수근거린다)
 스님!(비웃는다)
 중놈 보고 스님 이라고? 흥-
 소리중 : 나무관새음 보살
 양 반 : 우리장수가 죽어부렀는디! 어똥코롬허면 살릴 수 있을
 께라우?
 제발 부탁인디! 점이라도 한번 쳐주쇼?
 잡색들 : (무릎을 꿇고 엎들이며)
 제-발조케 살려주쇼?
 스님 아니 중님 부탁드립니다. (사정한다)
 스님은 무신놈의 스님이나? 제놈이 중놈 이제!(비꼬는 말투로)





조리중 : 음- (잠시 사이를 두고)
소승을 따르시오.

-할미와 양반이 조리중의 뒤를 따르고 다른 잡색들은 그자리에서 투전판을 벌인다.

-각시는 머리에 소리북을 이고 궁둥이를 흔들면서 조리중을 따른다.

각 시 : 어머니! 우리 장수가 정말로 죽어브렀당가?

할 미 : 참말로 큰일이다, 큰일!

-조리중이 대포수의 투구 앞에 자리를 잡고 앉고 각시는 북을 그 앞에 놓는다.

-조리중이 대롱을 돌리며 짐을 친다.

비리쇠 : 나오리. 오-홍

양 반 : 나 불렀나?

비리쇠 : 오-홍, 예-, 나 장개 조개 보내주썬? 오-홍

양 반 : 백키놈! 니 주제를 알아야제 이놈아!

너는 이놈아! 니 코를 봐라? 니 코, 그래가지고 무슨 장개는 장개냐? 이놈 아!

비리쇠 : 오-홍, 동네 아주머니들이 (코를만지면서) 오-홍 내 코가 보물이라고 허든 디라우!

양 반 : 백끼놈! 저리가거라 이놈아. (비리쇠가 도망간다)
그래가지고 무슨놈의 장개는 장개냐? 에이 츠츠

양 반 : 홍작삼아-. 아이 홍작삼아!

홍작삼 : (건성으로) 예-

양 반 : 너 이리 조케 오니라 (홍작삼이 머뭇거린다)

아 이놈이 어른이 부르는데 빨리오지 못하겠냐?

홍작삼 : (놀음을 멈추고 눈치를 보면서 다가온다)

양 반 : 너는 왜 이로끔 맨날 얼굴이 별-개같고 다니냐?

홍작삼 : 공께! 그것이라우, 내가 어려서부터 술을 쪼개 많이 허다 보니까 주독이 걸려서 그런 다고 험디다요.

양 반 : 뭇이여? 술을 많이해서 그런다고,
예-이 못된놈! (때리려한다)

홍작삼 : (눈을 흘기며 도망가면서)
멜급씨 잘 놀고있는 사람을 불러다가

양 반 : (참봉에게 다가가며)

야? 갓 쓴놈아! (참봉을 때리면서)

참 봉 : 나 말이나? 이놈아. (눈을 흘긴다)



양 반 : (얼굴을 가리키며) 너는 왜 나빠닥이 요모양이냐? 반쪽
은 별경교 반쪽은 허였고
참 봉 : 내가 어려서 부터 벼슬을 허다보니 공술을 많이 얻어 먹
어서 요-리 절반이 주독이 들어 그런다 이놈아.
(대들면서) 왜!- 왜!- 왜!-
양 반 : (도망치듯 뒷걸음 치면서 귀찮다는듯)
그래! 그래! 알았다 알았어.
(돌아서며) 어디 한놈이나 쓸데가 있어야제!

-이때 대포수가 투구를 머리에 쓰고 살아난다.

할 미 : (깜짝놀래 잡색들에게 뛰어가며)
아야-, 큰놈아-, 작은놈아-, 창부야-,
잡색들 : (놀음에 빠져 건성으로 대답한다)
예-. 예-
할 미 : (잡색들에게 닥아가며)
우리 장수가 살아났 담마다. 우리장수가-.
잡색들 : (놀음을 멈추고 깜짝 놀래며)
예-, 뭣이라고라우, 우리 장수가

-모두들 대포수쪽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난다.

잡색들 : (기뻐하며)
오매! 정말로 우리장수 살아나 부렸어야!

오매! 시상에 살아나 부렸네!
그 중놈 아니 참말 스님 점괘한번 희안허네!
오매! 중님 고맙습니다.

-모두 일어나 함께 어울린다

상 쇠 : 자! 이젠, 나발도 찾았고, 대포수도 살아났으니 우리가 다
시는 싸우지말고 사이좋게 지내도록합시다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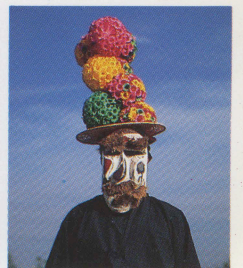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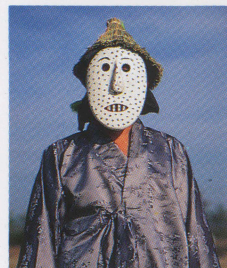
모두들 : 그러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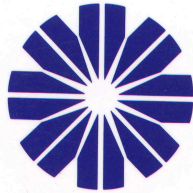
암-은 그렇제 진직 그래야제

상 쇠 : 자! 군사들 우리 한바탕 놀아보세!

모두들 : 얼씨구! 절씨구!

-흥겨운 구정놀이가락을 내어 모두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.





21세기 1등 광주건설